

청정수 태부족... 지구촌 물파동 극심

지하수 오염

물의 오염은 물 자체만의 정화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다른 생태계들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부처님은 기세경(起世經)에서 물의 대신(大神)이 "물의 세계 안에는 땅, 불, 바람의 세계가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부처님은 그를 질책하여, "대신여, 이제 그와같은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왜하면, 이 땅의 세계안에는 모든 땅, 불, 바람의 세계가 갖추어 있으며 다만 그 안에 물의 세계가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하셨다.

물의 오염은 다른 땅, 불, 바람의 생태계의 오염에 영향을 받으며,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체나 자동차에서 유발되는 대기오염을 줄여나가야 하고, 또한 각종 폐기물에 의한 토양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나 핵무기에 의한 열오염이나 방사능오염도 봉쇄되어야 하며, 직접적으로는 생활하수나 산업폐수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의 소비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소비는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다. 부처님은 "물을 향락하는 자는 괴로움을 향락한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물의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물부족의 조짐이

태계로 스며들던 빗물을 하수도를 통해 직접 강이나 바다로 흘려 보냄으로써, 지하수면을 하강시켜 토양을 사

또한 농부들은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분을 농작물에 공급하기 위해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도시의 생활하수에 이러한 영양분이 충분하므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해야 한다.

이 방법은 강과 호수의 오염을 막고 농작물 생산을 증대시키고 물소비를

이스라엘 하수 70% 재처리 농업용수로 오염방지법 제정 생태계 연계 정화 시급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하수면의 하강, 호수의 크기가 줄어들고 습지가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사용되는 물의 오염 정도에 따라 물의 정화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

물의 사용이 늘어나면, 저수지, 수도, 펌프장, 상수도관, 하수구, 하수처리장 등의 설치와 유지에 엄청난 비용이 들고, 게다가 상수와 하수를 모으고 처리하는 데 많은 에너지와 화학약품이 사용되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가중된다. 더구나 하수도 시설의 확대는 비가오면 자연스럽게 지하생

막화 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대도시나 중도시에서는 포장도로를 통해 하수도 속으로 빗물이 대부분 유실됨으로써 더욱 심각해 된다. 도시의 토양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빗물이 직접 토양속에 스며들도록 도로포장을 개량해야 한다.

물의 오염과 물부족 현상을 타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물의 재활용을 추진하는 것이다. 물 사용의 2/3는 농업용 관개수이다. 논밭에 물의 공급방식이나 관계기술의 개발을 통해 물을 절약할 수 있다.

막는 삼중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하수의 70%를 재처리하여 농업용 관개수로 공급하고 있다.

그밖에 산업국가에서는 전체 물소비의 50~80%가 공업용수로 소비된다. 따라서 공장폐수에 의한 환경오염은 엄청난 것이다. 그러나 공업용수의 재활용을 추진하면 예를 들어, 철강 1톤 생산에 들던 280톤의 물을 14톤으로 줄일 수 있고, 또한 오염기준치의 수질을



◇물의 소비량은 날로 늘고 있으나 깨끗한 물은 줄고있다. 물도 이제 아껴써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방류할 수 있어 환경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 공업용수의 재활용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은 강력한 오염방지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한국불교대 교수)

'95 신 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오는 9일은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秋夕)이다. 음력 8월15일인 추석은 한가위·중추절(仲秋節)이라고도 한다. 즉 가을의 한가운데인 이 명절은 농경사회에서의 추수 감사의식에 해당되는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듯 추석은 마음의 넉넉함과 물질의 풍요를 구가하는 명절이다. 고향을 찾아 객지 생활의 고생을 풀고 성묘를 하며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것도 추석날의 넉넉한 것이다.

그러나 불자들은 추석이 가장에서만 지내는 날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추석날에는 사찰에서 제사의 식등만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추석이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한 풍요의 명

금주의 주제

추석날 절에 가지

일년간 고생한 보람 이웃에게 회향하는 날 부처님께 감사의 마음 전해야

절이란 점에서 일년간의 고생과 보람을 남에게 향하는 날로 자리잡아야 한다. 따라서 추석날도 가정에서의 차례나 성묘를 마친후 사찰을 찾아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 사찰 역시 추석 연휴를 기해 특별법회를 마련 불자들에게 기쁜 회향의 법석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사찰 의식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단계지만 불자들은 고향마을의 사찰을 찾아 경건한 시간을 갖고 새로운 생활의욕을 찾을 수 있으며 남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함께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모처럼 가족이 모이는 기회인 만큼 사찰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

감사의 명절을 회향의 명절로 바꿔나가는 것은 불자의 당연한 도리이다. 부처님은 늘 남에게 베풀며 살 것을 강조하셨다. 비록 지금이 농경사회는 아닐지라도 내 일터에서의 보람을 남에게로 회향한다는 것은 불자들이 할 수 있는 미덕일 것이다. 이제 추석을 '절에 가는 날'로 정착하자.

임새 있는 모습이 불만이다. 이외에도 통학혁명 모의탑과 황토현 기념관, 정봉준 생가 및 묘소 등 통학혁명 전적지도 돌아본다. (02)725-1284

차다와 선(토방), 차이야기·선이야기(대원정사), 차한잔(신어림)등 차에 관한 책도 다수 출간돼 있어 차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051)555-6072

차와 禪을 함께 공부 광명차문화회 다례 실습

한국불교의 큰 별 서산스님은 살아생전 일상 차를 즐기셨다. 그리고 선의 깊은 삼매에 사셨다.

이외에도 많은 고승들이 차를 벗삼아 청정생활을 영위하면서 선정에 드셨다. 이렇듯 차는 예로부터 불교와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

부산 광명차(茶)문화회(회장 최미봉)에서는 차와 선의 삼매에 들 도반을 기다리고 있다. 광명차문화회는 매일 양력 초하루 온천장 금어암(주지 월강)에서 차에 대한 이론과 다례 실습을 한다.

아픈 불자님들 오세요 조계사 무료건강 상담실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치유방법을 몰라 고통을 받고 있는 불자들이 우리 주위엔 의외로 많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 조계사 신도회(구도부장 남여래행)는 신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료건강상담실을 운영한다.

빈곤노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진료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상담실은 매주 월·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화회관 2층 결혼상담소에서 실시한다. (02)723-3810/739-1951

신행수첩

발타라존자 자취를 따라 대승불자회 제주 철야법회

발타라존자가 9백나한을 거느리고 와서 전법했다는 초전법륜지 제주도엔 발타라존자 이름을 따서 지은 존자암이 있다.

중·장년 직장인 불자를 위한 신행모임인 대승불자회는 오는 23일~24일 제주도로 철야정진기도법회를 떠난다.

관음사와 약천사는 물론 불탑사 오층석탑, 만수사와 해운사에 있는 복신미륵등 제주 불교문화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02)736-4848

깨달음은 굳은 원력에서 대구불교대 설장님 특강

"높이 나는 갈매기가 멀리 보고 큰 원력을 세운 수행자가 큰 깨달음을 이룬다."

대구불교대학(학장 지성)은 4일 오후 2시 대구 고려예식장 3층 봉실에서 중앙총회위원장 설장님을 초청 '신앙의 원력'이란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의 발원은 크나 큰 원력을 낳아 죽을 앞에서도 두려움 없는 정진으로 깨달음을 이루고 증성

이웃과 함께 인정넘치는 한가위를

조계종 대구신도회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는 말처럼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에 맞이하는 추석은 집집마다 여유와 인정이 넘치는 민족명절.

하지만 즐거워야 할 추식에 버림받고 소외받은 우리 이웃들은 더욱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마련.

우를 어루만지는 준비심을 발한다.

또 신행에 있어서의 원력은 읽없는 정진을 가능케 하는 힘으로서 그 뜻과 원리를 아는 것은 끝없는 생을 거듭하며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방향타 구실을 한다. (053)255-4873

고려동종 눈여겨 보자

터사랑 창립 1돌 국토순례

변산반도 제1의 사찰로 꼽히는 내소사와 개암사는 변산팔경을 두르고 가인봉 뜰에 안겨 있는 사경을 돌우는 성지로 유명하다.

조계종 대구광역시 신도회는 올해나 추석에 맞아 무의탁노인이나 고아등 불우한 이웃을 위해 십시일반의 작은 정성들을 모으고 있다.

성금, 속옷, 양말, 쌀, 기타 생필품등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들이 모여 혼 혼하고 인정넘치는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053)253-2886

터사랑이 창립 1주년 기념으로 9월23일 부안 내소사 등을 둘러보는 국토순례를 떠난다.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석포리에 상륙하여 이 절을 찾았다 해서 내소사라 이름지어졌다는 구전이 전해지고 있는 이 절은 법화경발본사경과 고려동종, 대웅전 등 값진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동종의 용통에 붙어있는 구슬과 입화장식에서 고려시대 종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 전문강사의 해설까지 들을 수 있어 불교문화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내소사에서 멀지않은 곳에 위치한 개암사 대웅전 역시 짜



◇불교무용의 출사위 유형이나 그 명칭이 사라져 가고 있어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 사진은 두 스님이 나비춤을 추고 있는 모습.

선정삼매에 든듯... 춤예술의 백미 '승무'

수행표현의 한 일환이며 부처님 가르침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불교무용은 예술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통도사 부산포교원이 오는 13일부터 3개월간 이영미씨(혜화여고 무용교사)의 지도로 불

교무용 강습회를 개최한다. 춤예술의 백미로 꼽히는 승무,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고 마음가짐을 깨끗이 하는 바라춤과 나비춤 등의 아름다움 속에서 불법삼매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051)816-2241

9월 15일! 한국불교의 푸른 미래가 열립니다

중앙승가대학 신축 캠퍼스 기공식

1600여 년을 이어온 불국토, 이땅에는 중앙승가대학이 있습니다. 불교인재의 요람, 중앙승가대학이 한국불교의 푸른 미래를 향한 새터전을 일룹니다. 9월15일! 중앙승가대학 신축 캠퍼스 기공식이 김포군 금정사 현장에서 거행됩니다. 이 역사적인 교육불사, 인재불사에 신심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동참은 미래의 한국불교를 떠받치는 큰기둥이 될 것입니다.

- 행사시순 · 1부 교복식 (오전 10:00~11:00) · 2부 기공식법회 (오전 11:00~12:00)
- 일시 : 불기2539('95)년 9월 15일 금요일 오전10시
- 장소 : 경기도 김포군 풍무리 중앙승가대학 이전부지 (금정사 경내)
- 주최 · 주관 : 중앙승가대학 발전위원회 ☎ (02) 929 - 9831, 926 - 4377

- 후원 : 일반 광화문(세종문화회관), 신촌(크리스탈백화점) - 130 ▶ 좌석 : 광화문(세종문화회관) - 130, 영등포역 - 60
- 직행 신촌(노고산미술소 이례) - 김희운수, 인천(시외버스 종합터미널) - 인형여객 김포행
- 원행 영등포역, 당산역 - 1, 3, 6

